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연례 장기 기증자 등록의 날에 장기 기증자로 등록할 것을 뉴욕 주민들에게 권고

2015년 신규 이니셔티브 시작 이후 신규 등록자 수 640만 명

9,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생명을 구하는 이식을 기다리고 있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장기 기증자 등록의 날(New York State Organ Donor Enrollment Day)에 뉴욕 주민들에게 뉴욕주 생명 기증 등록기관(New York State Donate Life Registry)을 통해 장기 기증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 기부를 포함한 의료 시스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뉴욕주 생명 기증 등록기관은 뉴욕 주민들이 장기 기증자가 되기 위해 등록하고 누군가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코로나19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뉴욕 주민들에게 장기 기증자가 될 것을 격려하고 그 절차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여 뉴욕의 커다란 사랑과 관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 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 기부가 감소했으며, 생명을 구하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기에 뉴욕 주민들이 장기 기증자가 되어 뉴욕주 생명 기증 등록에 함께하도록 권고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이 완전히 회복하는데 반해, 고령 인구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폐와 다른 장기에 손상을 입을 위험이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해 장기 기증자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장기 조달 및 이식 네트워크(U.S.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에 따르면 현재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108,675명의 미국인 중 뉴욕 주민은 9,000명이 넘습니다. 생명 기증 뉴욕주에 따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장기가 제시 시간에 기증되지 못하여 4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매년 사망합니다. 전국적으로, 연방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리부(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이식에 적합한 장기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22명이 사망합니다.

9분마다 대기 목록에 사람이 추가되지만, 한 명의 기증자가 조직 및 각막 기증을 통해 8명의 생명을 구하고 75명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은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의 약 41%가 등록기관을 통해 장기 기증자로 등록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사람들이 장기, 눈, 조직 기증자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되는 것은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의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장기 기증자가 될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모든 뉴욕 주민이 이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생명 기증 뉴욕 상임이사 Aisha Tato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뉴욕 주민이 장기 및 조직 기부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기증자 등록의 날은 이러한 지원을 실천으로 바꾸고 가능한 한 많은 기부자가 등록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생명 기증 뉴욕주, 기증 지역사회, 뉴욕주 보건부 및 뉴욕주 차량관리부의 결합된 노력이 현재 생명을 구하는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도록 도우려하는 것을 압니다."

라이브온뉴욕(LiveOnNY)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Helen Irvi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올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돕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기 기증자 등록의 날이 더 많은 사람이 장기 기부의 힘에 대해 배우고 삶의 끝에서의 희망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생명을 구하는 장기 기증자도 그러합니다.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의 약 10,000명의 사람에게 함께 희망을 가져다 줍시다." 뉴욕주 생명 기증 등록기관에 다음의 온라인 옵션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생명 기증 등록기관 [웹사이트](#)
- 뉴욕주 차량관리부 [웹사이트](#)

"로렌법(Lauren's Law)"에 따라 차량관리부 고객은 운전 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갱신 신청서의 기부 섹션을 작성하여 장기 기증자로 계속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9세에 생명을 구하는 심장 이식을 받은 록랜드 카운티 거주자인 Lauren Shields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투표에 등록하는 뉴욕 주민은 유권자 등록 종이 또는 온라인 양식으로 [여기](#)에서 해당 섹션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보건부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NY State of 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건강보험을 찾고 있는 뉴욕 주민은 여기에서도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부는 또한 인식을 높이고 중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생명 기증(Donate Life) 맞춤형 번호판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이와 같은 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연회비 20달러는 장기 기증 및 이식 연구와 장기 및 조직 기증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라이프패스 잇 온 신탁 기금(LifePass It On Trust Fund)"을 지원합니다. 변호관은 차량관리부 웹사이트인 [여기](#)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장기 기증 등록자를 늘리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은 2017년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여 뉴욕주 보건부에 모든 정부 기관, 뉴욕주 생명 기부,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뉴욕주 생명 기증 등록기관을 통해 장기 기부자로 등록할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또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보건부의 다양한 라이선스 또는 인증을 신청할 때 장기 기증자가 될 선택지도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보건부 공식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Official Health Plan Marketplace\)](#)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할 때에도 장기 기증자가 될 수 있으며, 246,073명이 이미 등록하였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